

제 209 호

그리스도 왕 주일

대축일

1976. 11. 21.

숨정이

발행인	김종택
인쇄인	범석규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갑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35098)

□ 강론 □



당신이 왕이요?

안용기 신부

빌라도가 예수님께 던진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 “내 왕권은 이 세상에서 비롯하지 않는다. 나는 진리를 증거하려는 목적으로 왔고, 그 목적으로 세상에 왔다. 진리에서 비롯하는 이는 다 내 소리를 듣는다.”고 동문서답 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파한 쇼(Show)성이 내포된 정치적 차원을 넘어 진리에서 출발하는, 진리를 목적으로 하는 신적차원의 정답에서 참다운 王과 王道를 발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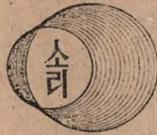
빌라도는 주님의 진의를 못알아듣고 정치적 판단을 내리므로써 그리스도를 죽게 만듭니다. 교회 없이 전설되는 도시와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도 질문을 던집니다. “교회가 왕이냐?”고. 허나 우리는 “외교 임금들은 백성을 압제로 다스리지만 너희는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생애를 봄으로써 참다운 왕이 주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이분은 왕실아닌 말구유에서 났고, 거기서 출발합니다. 이분은 에덴이 폐허된 광야에서 경제성장보다 천주님의 「말씀」을 우위에 놓았습니다. 이 「말씀」은 어느 의미에서 “사람을 우리 모상대로 만들자”에 있지 않을까요? 이분은 이목을 끄는 잔술책보다는 천주님의 말씀에 완전히 의탁함에 있었고, 金과 權에 대한 숭배보다는 천주님께 대한 숭배였습니다. 이것은 곧 천주님의 모습을 닮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에 대한 신뢰와 사랑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나환자를, 중풍병자를, 절름바리를, 봉사와 귀머거리를 안식일에 관계없이 낫게 해주셨습니다. 또 백부장의 하인도 낫게 해주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빨은 이빨로, 며칠 “월수를 네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일곱번째 일흔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주님 자신이 막달레나를 용서했고 우도를 용서했고, 십자가상에서 인류에 대한 성부의 용서를 청했습니다.

베틀레헴에 새로 나신 왕 예수님은 천주님의 말씀으로 된 사람을 제일 중요시하고, 믿고, 사랑했습니다. 속고 또 속아도, 아니 자신을 죽여도, 중요시 하고 믿고 사랑했습니다. 이 새로운 왕직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빌라도의 질문은 계속됩니다. “네가 왕이냐?”고. 우리는 주님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정치적 왕이 되려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증거하고 정의를 구현할 따름이라고-

이제 당신은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빌라도의 법정인가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법정인가요? 나는 진리가 왕하는 주님의 법정을 택하겠습니다. 빵과 술책과 金과 權이 설치하는 광야의 도전장에서 베드로의 서툰 칼보다는 팔고타를 향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택하겠습니다.

교형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돼지배가 아까워 진리와 정의의 왕이신 주님을 추방하는 부류가 되지 맙시다.
“그리스도 왕께 충성!”, <부안천주교회 주임신부>



연옥 見聞錄

(수은주가 영하로 내려간 어느날 밤 시내 버스에서)

- 아가씨 이게 막차인가?
 - 아니오, 두서너대 남았어요.
 - 다리 좀 올려요, 올려. (연약한 아가씨라고 깔봤다가는 큰일 날 힘으로 사정없이 밀어낸다.)
 - 아이구구, 사람 죽어. 그만 밀어. (그냥 숨넘어 가는 소리가 여기 저기서 터져 나온다.)
 - 야이 XX아, 살살 밀어. (술취한 중년 부인이 고래고래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나이 어린 승무원에게 퍼부어 낸다.)
 - 쌍! 술을 입으로 먹지 XX으로 치며. 나잇살이나 먹었으면 짙게 굼어가지.
 - 야! 기침애가 시집 잘가겠다.
- 귀를 막지 않고는 배겨나지 못할 말들이 제멋대로 난무한다. 여기가 바로 연옥이구나 하는 생각이 퍼뜩 든다.

11월 율령성월을 맞아 연옥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지금 숨쉬고 사는 이땅을 평화의 땅으로 바꿔야겠다.

버스 정류소에는 시간을 안내해서 추위에 무작정 떨고 시간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자. 옛장수 가위 맘대로 운행하는 횡포도 없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시간표는 곳곳에 써 붙여야 한다.

한창 나이의 승무원들도 풍성하고 안정된 정서를 맞으며 생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기업주도 승객도 다같이 노력해야 한다. 8시간 근무로 피곤을 덜어주고 잔돈을 준비해서 입세름이 없도록 하는 일도 그것이다.

승무원들도 최대의 노력으로 친절하게 봉사해야 한다. 우리 모두 조금씩만 노력하면 이땅의 연옥은 천당으로 바뀔 것이다.

숨정이 산책



□ 긴급 진단 □



신자들의 기도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김 용 석(가스발)

기도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는 신자라면 누구나 - 기도는 하느님과 대화이다 - 라고 대답한다. 그러나 대화란, 어디까지나 상대적이기 때문에 내 이야기를 들어줄 상대가 있어야 하고, 내 말을 들은 상대의 대답이 있어야 하며, 또 내가 상대의 말도 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도가 하느님과 대화라면,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실만큼의 진실된 말씀을 드려왔는가?

우리는 미사중에 신자들의 기도를 한다. 신자들의 기도란, 어느 한 개인을 위한 특정기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공동체적인 기도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작은 회중(會衆)이 볼 수 있고 효과적인 표지-성사-가 되는 보편적 교회의 구성원들로서의 그 공동체 기도는 역시 교회의 보편적 지향들을 위해서 그 공헌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이 공동의 응답은, 우리 자신의 개인 고백 행위가 합체된, 전교회의 공동체적인 기도인 만큼, 성직자들이나 평신도들 모두가 발해야 하는 거원이 그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신자들의 기도를 바칠때 입을 다물고 있는 신자들은 영세로 받은 그들의 보편적 사제적의 실천이 되는 이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 소치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다.

미사중에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인간 전체에 관심을 쏟는 두 순간이 있다면, 곧 강론과 신자들의 기도인 셈이다. 말씀의 전례는 신자들의 기도로서 끝나지 만이 신자들의 기도의 중요성은 말씀의 전례로써 그리스도 신자들이 제시된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초대될 뿐 아니라, 방관자가 아닌, 그리스도를 봉헌하고 모든 형제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자신을 봉헌하는 협력자들로써 직접 성찬의 전례에 들어갈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기도가 하느님과 대화라면, 우리의 이야기를 하느님께서 들으실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참다운 대화가 되도록 겸손으로 정성을 다해야 하며 어느 누구나 다같이 응답하는 기도가 되어야겠다.

신자들의 기도의 그 기반이 될 사도 성 바오로의 훌륭한 말씀을 기억한다.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원과 간청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고 권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이며 우리 구세주 하느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일입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1티모2:1-4. <김재천주교회 전례위원장>

한국(流)온수온돌 연탄 보일러

★ 꼭 찾아 주세요.

※ 연탄 가스 때문에 고생하세요?

이젠 염려 없어요

한국 온수 연탄보일러가

연탄가스에서 해방시켜 드리니까요.

연락처: 전주시 중앙시장 상가

전 화: ④ 4 8 7 4, ④ 2 6 2 8

범 창 규(베드루)



3.1사건 항소 공판 방청기 (1)

김 영 신 신부

3. 1사건에 대해서 변호인단은 76년 10월 14일 항소 이유서를 작성 서울고법에 항소했고 검찰측도 쌍방 항소를 했다. 그래서 지난 11월 13일 10시15분 공판이 오겠단데 1심과 똑같은 대법정에서 열렸다.

방청석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고 댕 앞자리엔 얼굴이 하얗게 퇴색된 18명이 미소를 가끔 띄며 근엄한 자세로 앉아 있다. 재판석엔 판사 3명이 모두 바뀌었다. 그러나 변호인 26명과 검사 6명중 5명은 1심 그대로 자리를 하고 있다. 순간 방청권 문제로 왔다갔다 하다가 법정엔 앉아 빌라도 앞에 풀려간 예수님 생각이 난다. (마테오 27:1-2) 베드로가 예수를 따라가 일의 결말을 보려고 경비병과 함께 앉아 있을때 대제관과 의회는 예수를 사형에 처하라고 그에게 대한 거짓증거를 찾고 있는 (마테오 26:58-60) 광경이 연상된다. 재판은 계속된다.

이택문 변호인은 1심 증인신청(※증인, 증거물 일체가 은 경기, 천관우, 김정우, 장원중, 조화순, 탁희준, 오세웅 등만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유현석 변호사는(가톨릭 변호인 대표)①신부들이 시인 금지하에 관한 강론, 성명서, 양심선언등에서 사실 왜곡했는지, 정보기판에서 금지하를 잘 안재우고 공산주의의로 조작했다는 사실여부와 금지하가 김대중 남치사건에 관한 시(詩) 부탁을 김대중에게 받았다는 조사 사실여부 금지하에 대하여 부당한 처우를 해준다는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감중인 김영일(일명 금지하)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②경과보고 내용중 한 사건으로 박형규목사와 김관석목사에게 사실여부를 물어볼 수 있도록 요청했다. ③문정현신부의 금지하 어머니 호소문 관계로 직접의뢰한 사실여부를 위해 금지하 어머니 정순배 여사를 증인으로 청했다. ④합세웅신부등 5명 신부 공소사실에 있어 종교인의 사회관, 정치관 특히 문제되는 宗政분리와 글로 표현된 언론과 양심문제, 1심에서 지학순주교가 지시한 것처럼 공소사실이 돼 있는데 교회법으로 본 사제와 주교와의 부종관계등에 관한 증인으로 원주교구장 지학순 주교를 신청했다.

검찰측 의견은 정반대라며 증인이 필요없다는 것 즉 원심판결로 충분히 알수 있고 변호인은 인정에 의한 것이라 본단다(방청석에서는 폭소)

결국 검찰과 재판장은 10분 휴정을 하고 증인채택 합의를 했다. 유진우, 천관우, 장원중, 오세웅을 증인으로 승인하고 금지하 기록검증만을 증거로 한다고 발표했다

2심에서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던 김대중(토마스)은 병보석 신청을 했는데 X-Ray하나 촬영않고 이상 없다고 기각했다.

사실왜곡을 했다지만 사실을 보여주지 않고 증인의 충분한 답변도 듣지 않는 일방적 재판이 이뤄지지 않도록 기도한다. 주여! 저들에게 형을 무서워 하지말게 하시고 오히려 재판하는 분들이 법이전의 문제가 되는 양심과 인권과 신앙을 그릇되게 재판할까봐 두려워하게 하소서. 아멘 (교구관리국장)

◎새롭고 저렴한 연탄 보일러 안내◎

한국(流)온수 온돌 공사

(본사지영 호남 출장소)

이리시 인화동 2가65-16 (전화4940)

한	동	암(모이세)
도종동 ③4874	부안 736	남원 90
다가동 ④4342	정읍 2157	임실 261
천동 ②2143	김제 45	무주
군산 3032	삼례 350	진안

※ 각 지방 지점 구할 (계약금 없음)

□양 지 쪽□



사람을 찾습니다

김 봉 희 신부

외로운 산골

벽지(僻地)라 모두들 저버려 텅 빈집,
촌생(村生)이 한(恨)인가, 가난이 병인가?
애오라지 미쁜생들 죄 없는 서름 가득 씹는다.

어딘가선 청승스런 벨로드, "주님을 찾습니다" 목메울더라만 나는야 우선 그런 사람
조차 얻을 길이 없으니 어인 일일까? 모두 다 「님」께로만 찾아가 버린 탓일까? 사람
밖에 주님 찾아(?) 훌쩍 사라지던 어느 까망고 흰 사람들을 여직 알 길 없어 회도 감
도 못한 속 없는 머스마는 명칭히 한숨 짓는다. 머언 산만 홀로이 바라보면서-

역설 같지만, 오늘날 주님은 정작 어디 계시을까? 도침지 화려한 사람들 속일까?
허리뼈가 굽어진 두뿔길 투박한 흙님들 속일까? 임하실제 그랬듯이 접하실제 그랬듯
이 오늘도 우리 「님」은 정녕 저 가냘픈 이들 속에, 아니, 버림받아 소외된 이 벽촌의
샌님들 속에 더욱 더 계시오리라. 여기, 가난한 형제들 가슴 속에 그 얼굴 그 모습이...

헌데, 요즘 난 사람들은 어찌해 거꾸로만 가는가? 가까운 길 제쳐두고 뒤희가는 십
사는? 그곳이 더 어렵기에 게서 공(功) 쌓자 함에서 인가? 인술(仁術) 선생님이야 황
금 좇는 세상이 그러하니 「울며 겨자 먹기」라지만, 도술(道術) 스님 또한 산간을 마다
함은 아무래도 가우뿔, 말세(末世)의 한(恨)이 서린다. 「히포크라테스」(醫聖)나 「베베
덕도」(道聖)는 아니 그랬는데.....

하어, 죄생(罪生)은 하염없이 걸는다. 아픈이 살펴줄 하얀 선생님(醫師) 그리고 고달
픈이 달래줄 검은 스님(修女)들을 애살스레 찾아 구(求)하며- "사람을 찾습니다, 구
합니다."고 방향을 틀며 오늘도 애처롭게 허리를 굽힌다. 타령을 한다. 팔자 거센 홀에
비 장계 간 죄로-

"아-아, 언제 오시려나? 기다리는 그 님, 맞잡고 쉼 내 님아, 나를 나를 나를 두
우고....."

<장계 매괴병원 신부>

요십이 (173) 김병오

프란치스코, 루시아,
히야신타는 성모님을
본 아이들이지-

그 아이들은 참 행복
하겠다

내 본명이 '프란치스코'면
좋겠다

그건 안되지!

내가 시집가서 남자를 낳으면
'프란치스코'라고 할려고
결정하였단다.

언제나 애용해 주십시오

임금님 찾 집

전주 전신전화국 앞
전화 ② 5 0 1 3
김 원 준(야고버)

결 [축] 혼

임 순옥 씨 장남 준영(시몬) 군
문 복석 씨 4녀 요숙(제마) 양

일시 : 11월 23일(화) 12시
장소 : 전주 중앙 천주교회
주례 : 이 대권 신부

각종 인쇄 (활판·음쇄)
최고 기술, 최저요금, 기일 엄수

又一印刷所

□군산시 장미동 51 (전화 3483)

이 병 일 (요셉)

결 [축] 혼

김 재철 씨 장남·금중(다미아노) 군
유 기선 씨 장녀 순자(안나) 양

일시 : 11월 27일(토) 11시
장소 : 서학동 천주 교회
주례 : 오 현 택 신부

각종 생파자 식빵 및 케익

미미제과소

전화 ② 6 5 8 9
전주시 경원동 1가 104~26
<상업 은행 옆>

김 민 주<가타리나>

□ 희소식!!!

나왔다 가스 완

(연탄가스 제독제)

★ 16년간 연구하여 국립 연구기
관의 유해가스 제독의 우수한
성적서를 획득하였음.

★ 1개월 경비 500원

□ 책임지고 따뜻하게

★ 한국(流) 온수 보일러

★ 금화식 보일러

가스완 전주 특약점

한국(流) 온수 보일러 전문 지점
주 원배(실배들)

□ 전주 매곡교 사거리

(전화 ② 2 1 4 3)

★공지사항★

1. 지난 11월 15일(월) 「조국과 고통받는 형제들을 위한 활동미사」에 참석한 김제, 남원, 대야, 이리 교우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가톨릭 농민회 농촌 지도자 교육: ① 일시-12월 1일 오후 2시~4일 오후 1시까지
② 장소-전주 가톨릭 센터, ③ 회비-2,000원(왕복 편의 제공) ④ 접수-11월 27일까지.
※ 농촌의 빛나는 내일을 위해 많은 참석 바랍니다.
3. 이상호 신부 성모병원 입원: 당하시는 고통을 함께 나누는 마음으로 케어를 비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4. 국군장병을 위한 성탄 위문품, 위문금, 위문편지 보내기 운동: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마감-12월 15일까지, 천주교 교구청)
5. 조국을 위한 불요기도회(22일(월) 오후 7시반, 가톨릭 센터)

(중앙)

전화 ③3651 주임 신부 이 대 권
전화 ③3874 보좌 신부 이 종 원
사도 회장 이 상 용

<12월 7일~9일> 팔복동, 송천동(12월12일~13일), 금암(12월 12일~14일), 덕진동(12월 15일), 병자성사(12월 17일), 직장인, 학생(12월 18일~19일), 누락자(12월 21일)

1. 성모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 빠진없는 참석 바람
2. 분당 확인지도: 11월 24일 ※ 사도회 상임위원, 회장단, 각 구역장, 각 신심단체장님은 필히 참석 바람. <10시까지, 본당 사무실>
3. 레지오 단원 연수회: 11월 27일 오후 2시<중정이 성당> 참가신청-11월 21일까지, 중앙성당 사무실에
4. 가정방문: 11월 22일~26일까지<경원동, 교사동>
5. 교무금 수입에 적극 협조합니다.

6. 신축성금: 총영규(50,000원) 누계 4,887,500원

(복자)

전화 ⑤238 주임 신부 김 종 길
사도 회장 조 성 로

1. 「성경연구」 희망자 신청 바랍니다
신청마감-11월 27일까지<사무실>
2. 개창 성가 연습: 매 주일 10시 미사중 10분
3. 애령회 정기 총회: 다음주일 공식 미사후. ※ 전 회원은 참석 바람 입회 희망자는 사무실에 신청바람
4. 미사 시간 변경(11월 22일부터): 아침미사-새벽6시반
5. 아직 교무금을 수입하지 않으신 분은 속히 수입해 주세요

(노송동)

전화 ③7032 주임 신부 공 아 영
사도 회장 박 종 용

1. 성우회, 성모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장사-이태영(베드로)
※ 젊은이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2. 청년들을 위한 「교양강좌」: 오늘 저녁 미사후(8시)
3. 반상회: 애덕반-우아동 을 아가다(23일 오후 8시)
신덕반-우아동 백마리아 (24일(수) 오후 8시)
4. 분당 확인지도: 11월 26일(금) ◎ 사도회위원-오전 9시까지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분당 신자-오후 1시반까지 나오세요 <이날 오전 10시미사는 없으며 오후 5시미사 있음>

(서학동)

전화 ③2276 주임 신부 오 혈 택
사도 회장 박 장 준

1. 매월 셋째 주일은 부녀의 주일입니다-오늘 공식 미사후 할머니회(50~70세) 어머니회(30~50세)결성이 있사오니 강당에 모여 주시기 바람.
2. 청년회 결성(22세~35세): 28일 10시 미사후 <단, 남자는 기혼자로 가함>
3. 분당 피정 및 교육: ① 일시-12월 1일 밤 7시반, ② 장소-서학동 성당, ③ 준비물-기도서, 성경, 성가책, 복주. ◎ 많은 신자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4. 반상회: 23일(화)-9반, 24일(수)-10반, 25일(목)-11반, 26일(금)-12반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박 종 근
사도 회장 김 용 환

1. 축하! 분당 신부 영명축일: 28일(주일)로 앞당겨 축하식이 있음
2. 청년회 월례회: 공식 미사후
◎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3. 봉헌 제도 변경 실시(오늘 주일부터): 세대주 봉헌금 교무금과 주일 헌금으로 수입한 헌금으로 처리함 가교 봉헌금, 주일헌금으로만 처리함
※ 지난주 수입 못하신 분은 오늘 주일미사에 꼭 수입하시기 바람 수입하신 분은 꼭 지켜주시오
4. 확인지도 및 전신자 교육: 신자교육(2시~4시), 미사(5시), ◎ 많은 참여 바랍니다.
5. 판공 성사 일정: 동산촌(11월 24일~25일), 내동리(11월 29일~30일), 전당리(12월 1일~3일), 미산리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 환 철
보좌 신부 김 병 환
사도 회장 유 석 중

1. 공시: 신품-소순형, 부제품-범영배
※ 12월 16일자 신품자들에 대한 조당 유무를 주임신부께 알려주시기 바람.
2. 꼬미씨음 월례회: 오늘 1시30분
3. 동·반장회: 오늘 저녁 미사후
4. 행복한 가정(산아조절)-문의전화 ⑨2904(오안젤라)
5. 다음주일 방문: 동·서원산동
6. 성서 동지회: 매주 월요일 7시30분

★ 각 분당의 금주간 소식과 지난주일 봉헌금 ★

지구	분 당	소 식	봉 헌 금	지구	분 당	소 식	봉 헌 금	
제 1 지구	고 김 부 수 신 태 인 정	창 계 안 유 인 업	본당 주보 축일 행사 안내 본당, 공소 교리교사 회합 화담회 개회(집단지교지구) 자모회, 청년 빈철택시오 모임 성탄 준비성가 연습 시작 성모회 월례회	9,500원 원 원 원	제 3 지구	주 현 동 등	방지기 사회 월례회 「성모회 재 구성」을 위한 모임	원 26,690원 14,400원
		대 분 울 명 중 합	사도회 분과 위원회 미사 시간 변경, 학생회 전례 위원회 성모회 ★오늘은 주보(그리스도왕)축일	5,245원 18,815원			제 4 지구	중 앙 노 송 동 진 자 서 학 동 등
제 2 지구	대 분 울 명 중 합	사도회 분과 위원회 미사 시간 변경, 학생회 전례 위원회 성모회 ★오늘은 주보(그리스도왕)축일	10,205원 57,050원 34,780원 원	제 5 : 6 지구	무 장 진 남 순 임	주 계 안 원 창 실	사도회 임원 및 구역장-임시 회합 주제 판공성사 실시(22일부터) □판공 안내 메레사 월례회 25일 사도회 월례회	원 7,265원 7,125원 18,380원 원 6,010원
제 3 지구	고 금 여 삼	★미남 공소 주보 축일... 다음주 각 분과 위원회 월례회 교리반 지도 사도회 월례회	7,035원 21,825원 12,600원 12,000원					